통증의학과가 뭐하는 곳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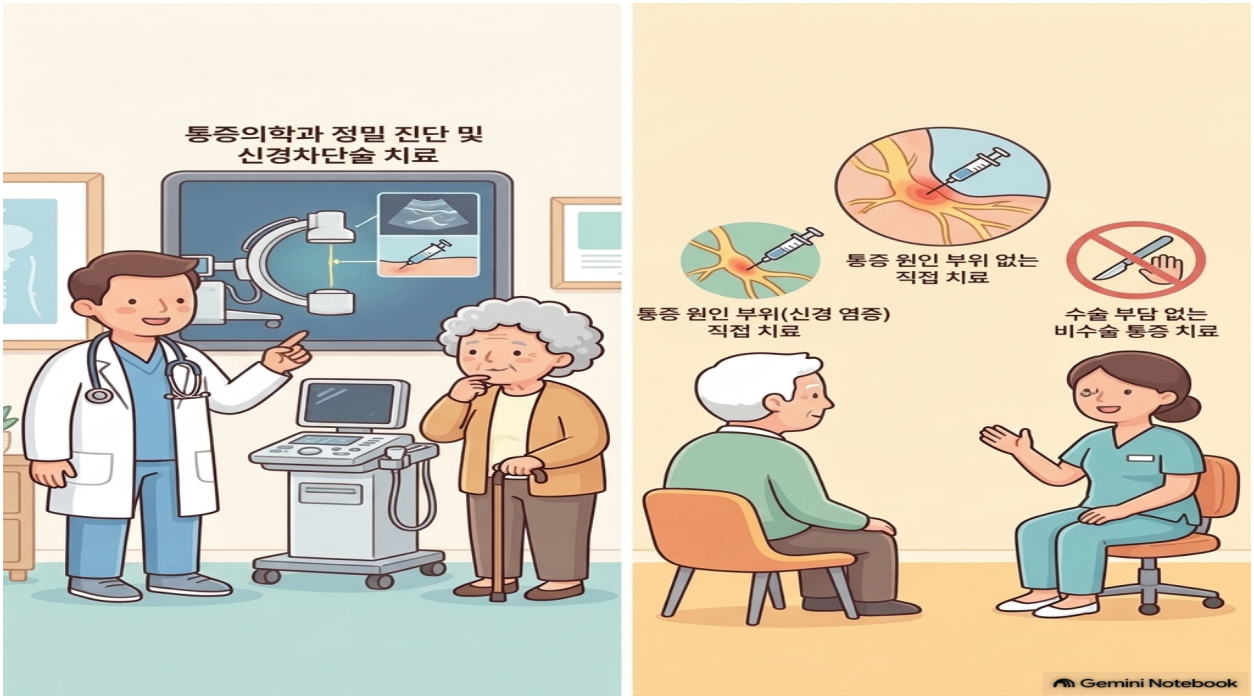
통증의학의 존재 이유, 선진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의 역사 이야기 (시니어 리포트 v2)

진료실에서의 대화: "원장님, 통증의학과는 도대체 뭐하는 과인가요? 예전에는 못 보던 과 같은데..."
통증의학과는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신생 학문이지만, 현대 의학에서 너무나 필요했기에 필연적으로 탄생한 전문 분야입니다. 왜 존재하며, 왜 선진국에서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역사를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1. 통증의학과는 뭐하는 곳일까요? (존재 이유)

예전에는 관절이나 척추가 아프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연골이 마모되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 통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질환(disease entity)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2, 8]. 신경 염증, 유전적 소인, 세포 감각 스위치의 민감화, 기계적 자극이 복합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원인 중심의 중재적 시술: C-arm(영상유도장치)이나 초음파로 통증 원인 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여 염증을 완화하는 정밀 신경차단술(Nerve Block)을 시행합니다 [4, 5].
•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예방: 수술 부담과 약물 남용 없이 안전하게 일상 복귀를 돕는 최전선 필수 의학입니다 [9].



<그림 1> 통증의학과 중재적 시술 개념도 (한글 안내 일러스트)

2. 왜 후진국보다 선진국에서 통증의학과가 활성화될까요?

국민 소득이 높고 사회경제 지수(SDI)가 높은 선진국일수록 통증의학과가 크게 활성화됩니다 [3]. 고령화와 사무직 증가로 만성 질환 환자가 늘고, 삶의 질(QoL) 및 정밀 의료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3, 8].

국민 1인당 소득(GDP) 및 SDI 연관성:
• 개발도상국/저소득국: 감염병/응급 수술이 급선무로 통증 클리닉 설치율이 14~18% 수준에 불과합니다 [8, 10].
• 1만 달러 진입 단계: 전 국민 건강보험 및 비수술 통증 치료 수요가 급증합니다 [3, 7].
• 3만 달러 이상 선진국: 세부 전문의 제도 정착 및 동네 전문 통증의원이 대중화됩니다 [1, 4].

<그림 2> 글로벌 발전 격차 및 소득 수준 그래픽 (한글 안내 일러스트)

3. 우리나라 통증의학과의 역사와 활성화 시기

연도 / 시기	주요 역사적 발자취
1885년	제중원(광혜원) 서양 마취의학 첫 도입 [1]
1950~1953년	한국전쟁 당시 UN군 군의관을 통한 현대 마취 기법 교육 [1]
1956년 / 1962년	대한마취과학회 창립 (1956), 의료법상 전문과목 공식 인정 (1962) [1]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완성 및 1만 달러 돌파로 대학병원 통증클리닉 확산 [7]
2001년	대한신경통증학회(KNPS) 창립으로 척추 비수술 신경치료 고도화 [6]
2002년	의료법 개정: '마취과' → '마취통증의학과' 법정 명칭 공식 변경 [1]
2000s~2010s	C-arm 신경차단술 보험 적용 및 동네 통증의학과 폭발적 대중화 [4,5]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통증주사는 뼈주사(스테로이드) 아닌가요?
A1. 아닙니다! 현대 통증의학과는 영상장비(C-arm)를 보며 부은 신경 주변에 소량의 약물을 정확히 주입하는 정밀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며, 스테로이드 오남용을 철저히 방지합니다 [4, 5].

Q2. 정형외과/신경외과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수술적 치료나 체형 교정 외에, 수술 없이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정밀 주사 시술 및 비수술 통증 치료에 특화된 차별점이 있습니다 [4, 6].

5. 결론 및 참고 문헌

통증은 참고 사는 미덕이 아닙니다.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원인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ferences:
1. Shin S. WFSA 2025. | 2. Grol-Prokopczyk H, et al. PAIN 2025 (PMID: 40553634). | 3. Wang F, et al. J Pain Res 2026. | 4. Lee EY, et al. Korean J Pain 2024 (PMID: 38072796). | 5. Cho S, et al. Healthcare 2023 (PMID: 37628549). | 6. Shin DA. Neurospine 2025 (PMID: 40625004). | 7. Choi ES, et al. Korean J Anesthesiol 2022 (PMID: 35945690). | 8. Fatoye F, et al. BMJ Open 2023 (PMID: 37185180). | 9. Ritchie D, et al. Eur J Pain 2026. | 10. J Pain Res 2026.